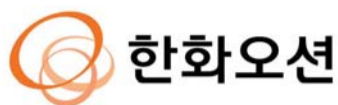


↑ 코스피 2567.55 (+10.47)	↑ 코스닥 859.16 (+7.12)
↑ 금리 (미국 9년) 3.373 (+0.052)	↓ 환율 (원-달러) 1312.70 (-5.40)



김동관號 ‘한화오션’ 닷 올렸다... 경영 정상화 본격화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완료

임시주총서 회사명 변경 등 의결
초대 대표이사에 권혁웅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에 김동관 부회장
빠른 경영 정상화·해외확장 지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1년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졸업 이후 22년 만에 한화오션으로 새출발한다. 대우에서 한화로

간판이 바뀌는 것은 45년 만이다.

한화오션의 출범으로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에 대우조선을 품에 안게 됐다. 김승연 회장의 오랜 염원인 ‘한국판 록시드 마틴’ 탄생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아직 모든 난관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한화오션은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저조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의 관계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과 9명의

신임 이사 선임 등의 의안을 의결했다. 한화오션 새로운 대표이사에는 권혁웅 부회장이 선임됐다. 또 사내이사는 김중서 사장과 정인섭 사장이 선임됐다. 김중서 사장은 상선사업부장을 맡고, 정인섭 사장은 거제사업장 총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한다.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해외시장 확장을 지원한다. 김 부회장은 ‘정도경영’과 ‘인재육성’을 통해 한화오션을 글로벌 해양·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키워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파트너스·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5개 계열사들이 약 2조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출자해 한화오션의 주식 49.3%를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6일 본계 약 체결 이후 6개월여만에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주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육해공 아우르는 방산기업 도약
10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에
부채 비율 1542%까지 치솟아
체질개선·노조관계 개선 등 과제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축함, 경비함,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 역량까지 흡수해 기존 사업영역인 우주·지상 방위산업에 이어 해양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한화오션의 경영 정상화와 체질개선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1년 1조7547억원, 2022년 1조6135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1542%까지 치솟은 상태다. 여



누리호, 오늘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3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기에 올해 1분기 국내 조선 3사 중 가장 저조한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주 실적은 HD한국조선해양이 72억8000만달러(약9조5000억원)로 수주 목표치 절반을 넘긴 상태다. 삼성중공업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기

록한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8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핵심 인력 유출과 인력난도 문제다. 지난해에만 160명이 넘는 직원이 경쟁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발표 가계빚 14조 감소 고금리에 상환 ↑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4조원 가량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고금리에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할부 무이자 혜택을 줄이면서 신용카드 할부 이용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사상 처음 가계신용을 구성하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모두 감소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시기였던 2020~2021년 월 평균 10조원이 늘어난 반면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5조원가량 줄어 완만한 부채 축소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1854조, 역대급 감소
가계대출·판매신용 모두 줄어
금리인상에 대출상환 비중 증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10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매매·전세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지 않거나 상환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신용카드 이용액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1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3조4000억원 줄었다.

박 팀장은 “지난해 말 소비가 회복되면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증가한 부분이 1분기 들어 소멸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무이자혜택을 줄여 할부 이용액이 줄어든 부분도 판매신용액 감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실수로 파쇄

609명 재시험 날벼락... 산업인력공 이사장 ‘사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백여 명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실시된 ‘2023년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착오 등으로 파쇄된 사실을 인지하고 재시험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해당 자격시험에

총 60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다.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부문이다.

공단은 “시험종료 후 포대에 담긴 해당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

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6월1~4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표일 연기없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9일에 시험결과를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1회차 응시자가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추가시험 기회(6월24~25일)가 한 차례 더 주고, 응시 미희망자에겐 전형료가 환불된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

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어수봉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 이사장은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혁신대책 등 다양한 자격검정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겪으며 단순 미세조정, 형식적 퍼포먼스 등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속 깊이 새기게 됐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불법집회 용납 못해” 민노총 “퇴행적 발언” /사진 뉴스1
-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점검” 日선 “수산물 수입 재개해야”

- ▲조태용 “한미일 정상, 여름에 만날 듯... NCG, 한미 간 먼저 틀 만들어야”
- ▲北 동창리 발사장 공사 급진전... 정찰 위성용 가능성



- ▲이종섭, 말레이 국방장관과 양자회담... 방산 협력 논의
- ▲검찰, 송영길 캠프 상황실장 추가 압수 수색 /사진 뉴스1